

# 초3때 강남·신도시로 '맹모 이사'

(자녀)

초3, 전입 7.3%, 전출 7.4% '1위' '대입 준비' 고3, 전출입 가장 적어 세종시>경기도>제주 순으로 높아 신도시·세종에 학령인구 집중 ↑

국내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많이 학교를 옮겼고, 고3일 때 학교를 옮기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 서울 학교의 순전입자는 강남·양천·서초구 등 교육특구에 몰리는 반면 농어촌 지역과 구도심 학생이 신도시 위주로 이동하면서 종전의 학군 수요의 변화도 감지된다.

1일 학교알리미 2018학년도 초중고 전입·전출 통계(5월 공시)에 따르면, 학교급·학년별 초등학교 3학년의 전출입 비율(전입 7.3%, 전출 7.4%)이 가장 높았고, 전출입이 가장 낮은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전입 0.1%, 전출 0.1%)이었다.

다수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서 고학년(4학년~)으로 넘어가기 전 이사를 하는 반면, 자녀가 대입에 집중하도록 고3 때는 이사를 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별 초중고 전입·전출 학생 수를 보면, 경기도 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학령인구의 집중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일부 교육특구의 순전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세종시 초중고 전출입 비율이 가장 높고(전입 12.7%, 전출 5.9%), 경기(전입 4.9%, 전출 4.5%), 제주(전입 4.5%, 전출 4.0%) 순이었다. 세종시는 2013년부터 정부청사가



구분	전입(%)	전출(%)
초등1	4.3	4.4
초등2	7.2	7.4
초등3	7.3	7.4
초등4	6.7	6.8
초등5	5.9	5.9
초등6	4.3	4.4
초등 평균	5.9	6.0

(자료=학교알리미·종로학원하늘교육)

본격 이전되며 최근까지 전입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입자는 2014학년도 정점(초등 44.9%, 중 37.6%, 고 8.5%)을 찍은 뒤 지난해 초등 17.1%, 중 9.5%, 고 3.6%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2기 신도시 개발과 입주에 따라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입 비율이 높았고, 순전입 비율도 +0.4% 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귀농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에 의해 순전입 비율이 +0.5%포인트를 나타냈다.

전국 251개 자치 시군구별로는 초중고 순전입 비율이 +2.0%포인트 이상(순전입자 100명 이상)인 곳은 모두 9곳으로 세종시(+6.8%p)를 비롯해 경

기도 용인시 처인구(+5.0%p), 하남시(+3.8%p), 시흥시(+3.6%p), 화성시(+3.4%p), 김포시(+3.3%p), 전남 나주시(+2.6%p), 인천 연수구(+2.1%p), 충북 진천군(+2.1%p) 등으로 경기도 2기 신도시 지역과 지방 혁신도시(나주시, 진천군)에 학생들이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순전입 비율이 증가한 곳은 3곳으로 강남구(+1.9%p, 순전입자 1158명), 양천구(+0.8%p, 순전입자 463명), 서초구(+0.3%p, 순전입자 136명) 순으로 선호하는 학군에 전입하는 학생 비율이 높았다.

부산의 경우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강서구와 남구 대연동 순전입 비율이 각각 +1.7%포인트로 해운대구(-0.1%p)보다 월등히 높았다. 광주는 남구(+0.3%p), 울산은 북구(+0.3%p) 순전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순전출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서울에서는 구로구(3.3%p), 금천구(2.1%p) 등이고, 부산은 중구(1.8%p), 대구는 서구(1.4%p), 인천은 용진구(3.6%p), 동구(2.9%p) 등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전통적인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함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는 반면, 신도시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종전 학군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역세권이나 숲세권, 물세권 등 편의시설이 좋은 주거 단지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상반기 신입사원 합격스펙은... 외국어 성적 우수한 인턴경험자

5곳 중 2곳 블라인드채용 방식 도입 평균 경쟁률 20대 1...회계 가장 치열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10곳 중 6곳은 합격자 중 인턴 경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서 직무적합성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사람이인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27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중 37%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했고, 채용 경쟁률은 평균 20대 1로 집계됐다.

신입사원 채용 시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스펙으로는 단연 '전공'(26.1%)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체 인턴 경험'(17.4%), '보유 자격증'(13.8%), '대외활동 경험'(7.6%), '인턴 외 아르바이트 경험'(7.6%), '학력'(6.9%) 순이었다.

평균 경쟁률은 20대 1로 나타난 가운데,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직무는 '재무/회계'(15.2%)였고, 이어 '영업/영업 관리'(12.7%), '연구 개발'(12.3%), '서비스'(12%), '인사/총무'(11.2%) 등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률이 지난해의 비슷하다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으나, '상승했다'(27.5%)는 답변이 '하락했다'(10.1%)는 답변보다 2.7배 이상 많아 지난해보다 경쟁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채용에서 직무적합성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인턴 경험 보유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기업 10곳 중 6곳(57.6%)은 합격자 중 '인턴 경험자가 있다'고 답했고, 전체 신입사원 중 인턴 경험자 비율은 평균 23.6%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22.9%)에서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신입사원의 외국어 성적 보유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토익 성적보유자가 62%로 작년 상반기(51.6%) 대비 10.4%포인트, 하반기(53.2%) 대비 8.8%포인트나 증가했고, 영어 회화점수 보유 비율도 작년 상반기 29.7%, 하반기 32.2%에 이어 올해는 38.8%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블라인드 채용 등 스펙을 배제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스펙 보유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한용수 기자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지난달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교와 상호협력 체결했다. /광운대학교

# 게임사 취준생 '꿈의 기업'은... 넥슨 > 카카오게임즈 > 넷마블

잡코리아, 1309명 대상 설문  
성별·전공계열 모두 넥슨 1위 꼽혀

올해 게임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임사는 '넥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게임분야 전문 취업포털 게임잡과 함께 올해 게임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1309명을 대상으로 '게임사 취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회사 50여곳

을 보기문항으로 제시, 복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취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게임회사는 넥슨(66.6%)이었다. 이어 카카오게임즈(45.5%)와 넷마블(42.1%), 엔씨소프트(40.6%)가 근소한 차이로 2위부터 4위에 올랐다. 이밖에 컴투스(8.9%)와 크래프톤(펍지)(6.0%), 스마일게이트(5.7%), NHN(게임)(5.1%) 등이 취업 선호 게임회사 톱 10에 포함됐다.

1위 넥슨은 성별과 전공계열별 분석

/한용수 기자

결과 모두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 취준생 중 69.0%가 여성 취준생 중에는 64.1%가 넥슨을 가장 취업하고 싶은 게임회사로 꼽았다. 이어 남성 취준생은 엔씨소프트(44.6%)를 여성 취준생은 카카오게임즈(57.3%)를 각각 2위에 올려 차이를 보였다.

전공계열별로는 경영계열 응답자들이 넥슨을 1위로 선택한 비율이 73.8%로 여타 전공계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인천재능대 국민참여사업 인증 획득

인천재능대학교는 학생자치 기구인 대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국민참여 기념사업에 참여해 독립에 대한 학생 인식 제고와 애환·애국심 고취 활동으로 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천재능대학교 대의위원회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인천지역 3·1독립만세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3·1독립선서 낭독을 시작으로 인천 감리서터 등 항일문화유산 답사를 진행했다. /한용수 기자

#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회경공고·유한공고 등 25개 고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회경공업고등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등 서울시내 25개 특성화고를 '2019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지원 사업단'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제화교육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해외취업진로 확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첫해인 올해 강서구청, 구로구청 등 10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북미·오세아니아(캐나다, 호주) 유럽(프랑스), 중동

(쿠웨이트), 동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서남아시아(인도) 6지역 13개 국가로 글로벌 현장실습형, 국제교류형, 현장체험형 등의 형태로 학생들을 파견한다.

학생들은 출국 전 학교에서 방문국의 언어 교육과 직무 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언어교육, 현장실습, 기업방문, 자매결연학교와 직업교육 교류, 현지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 광운학원, 남아공고와 학생 교류한다

'글로벌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등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지난달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뉴먼트파크 고등학교와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글로벌 유스 리더십 개발 ▲ 지구 온난화, 에이

즈, 말라리아, 천연자원 및 인류 보호에 대처하는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 활동 ▲ 기술, 경제, 교통 및 문화 선진국으로의 학생 파견 및 체험활동 ▲ 글로벌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미나 등의 참여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용수 기자

# 웅진씽크빅 동물마니아 어린이 위한 전집 출시

'정말? 진짜? 동물 탐험'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스마트 독서 브랜드 웅진북클럽을 통해, 어린이 동물 마니아들을 위한 유쾌한 동물 탐구책 '정말? 진짜? 동물 탐험' 전집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집은 1982년부터 동물·자연·환경 관련 도서를 선보여 온 생대 전문 출판사 미셸퀸틴(Michel Quintin)의 대표작이다. 현재 미국, 스위스, 브라질, 중국 등 21개국에 출간돼 어린이 추천도서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립한



경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곤충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번역본 전권을 감수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전한다. /한용수 기자